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WINGS OF EBONY

가제 : 검은 날개 제 1 권

저자 : J. Elle

출판사: Denene Millner Books/Simon & Schuster Books

발행일: 2021년 1월 23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YA 판타지



* 반 인간, 반 신인 한 흑인 소녀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오가며 불의와 숙명적 과제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

* 열띤 옥션으로 6-figure로 계약된 리드 타이틀

‘없는 길도 만들어 내라.’는 루가 여태껏 살아온 방식 그 자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루의 어머니가 집 문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처참한 비극이 벌어졌다. 하지만 당시 그 누구도 루의 어머니의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하지 않으려 했고 그 일은 그저 잊혀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루와 루의 여동생 타샤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다. 루는 그 동안 잘 알지도 못했던 아빠 때문에 강제로 집을 떠나 여동생과도 헤어져, 홀로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숨겨진 섬 ‘가잔’으로 가게 되었다. 루는 모든 이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지칭하는 그곳의 유일한 반 신, 반 인간이었고 그곳의 지도자들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자신들이 가진 마법의 힘을 지키길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루는 여동생이 보고 싶은 마음에 가잔의 신성한 법을 어기고 휴스턴으로 돌아와 타샤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루는 악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 들이고 조상들로부터 물려 받은 힘을 발휘해야만 했다.

엄마가 돌아가신지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가잔에 갇혀 있던 루는 이 시기에 동생을 결코 홀로 남겨둘 수 없었다. 타샤를 향한 그리움으로 슬퍼하던 루는 결국 ‘절대 이 곳을 떠나서는 안된다.’라는 가잔의 법을 어기고 가잔의 마법 학교 기숙사를 탈출해 다시 휴스턴의 고향 동네로 돌아왔다. 이 곳에 모여 사는 이웃들은 전부 루의 고모나 이모뻘 되는 사람들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제 루는 비밀이 많은 사람이었고,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후드로 얼굴을 가리고 타샤가 학교에 갈 시간에 맞춰 집 문 앞에 엄마가 자신에게 주었던 펜던트를 담은 선물 상자를 몰래 두고 나왔다.

루가 존재자체도 몰랐던 아빠 애심에게 끌려가던 날 애심은 자신을 가잔이라는 숨겨진 나라의 통치자이며 루에게 타샤는 엄마만 같을 뿐 아빠가 다른 자매이니 ‘순수 혈통’이 아니라며 자신만 가잔으로 데려 갔고 루는 그 곳에서 일 년간 삼엄한 감시 속에서 마법 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루는 가장 슬픈 날 타샤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루는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타샤에게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인간 세계가 아닌 가잔의 세계에 속한 반 인간이자 반 신인 루는 인간을 만져서도,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서도 안되었다. 타샤가 스쿨 버스에 오르려는 그 때, 루는 타샤가 스쿨버스에 타는 대신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남자아이가 끌고 온 자동차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때 타샤는 루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고 순간 타샤는 충격으로 입을 크게 벌렸다. 이어 루와 눈이 마주친 운전석의 그 문신한 남자는 무엇이라도 알고 있다는 듯 갑자기 미친 듯이 사방으로 돌진하며 길 대신 루를 바라보았다. 루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손을 들어 손가락을 넓게 벌렸다. 그리고 모든 정신을 손목에 차고 있는 오닉스 볼 시계에 집중했다. 그러자 갑자기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멈추면서 시간도 멈춰 버렸다. 루가 타샤의 근처로 가자, 타는 냄새가 났고 운전자는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으며 부서진 자동차 안에는 타샤만 정신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루는 다급히 타샤를 불러 깨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곧 폭발할지도 모르는 자동차에서 타샤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마법이 필요했다. 하지만 루는 용기를 내 타샤를 직접 끌어내렸고 자동차가 폭발하기 전에 마법의 힘을 발휘에 보호막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다. 루는 타샤를 안고 현장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곧 오닉스의 볼 시계를 통해 가잔에서 만난 유일한 친구 브리가 보내준 메시지를 받았다. 몇 분안에 가잔의 경찰들이 루를 잡으러 도착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곧 루를 멈춰 세운 것은 일반 경찰이었다. 그 경찰은 루에게 방금 일어난 차 사고에 대해 물었고 루는 운전석에 있었던 남자에 대해 말했지만 경찰은 아무도 그런 남자를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루는 구급차에 타고 있는 타샤와 작별 인사를 하자마자 정부 특수요원으로 위장한 가잔 경찰에 붙잡혀 가잔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루에게 가잔은 여전히 낯선 곳이었다. 그레이족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루는 그 어떤 자유도 마음대로 누릴 수 없었고 애심은 이곳에서 유일한 반 인간이자 유일한 흑인인 루를 마법의 세계에 속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잔 의회를 압박 중이었다. 그러나 루는 휴스턴으로 가서 그 곳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 카르텔, 인종 차별, 성차별 문제에 맞서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가잔 사람들은 인간은 마법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감정적인 동물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도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머지 않아 루는 동생을 위협에 빠트린 사람들이 어머니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 세계와 가잔의 장벽을 뚫고 두 세계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어리지만 강한 흑인 여성이 등장하여 공동체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J. 엘르 (J. Elle)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태어 났으며 저널리즘 학사와 교육 행정 및 인간 개발 MFA를 취득했다. 출판과 커뮤니티에서 주로 소외된 목소리를 옹호하고 있는 그녀는 프리 스쿨 디렉터,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창작 멘토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 소설은 그녀의 첫 소설이다.

제목 : THE MYSTERY OF BLACK HOLLOW LANE

가제 : 블랙 할로우 레인의 비밀 제 1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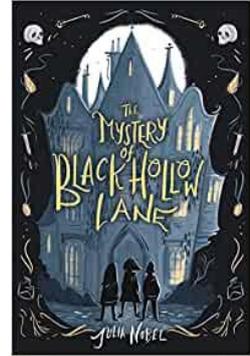
저자 : Julia Nobel

출판사: Sourcebooks Jabberwocky

발행일: 2019년 4월 1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



* "신비한 유물, 숨겨진 문, 콧물 범벅인 룸메이트, 가족의 비밀, 그리고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멋진 오래된 기숙 학교까지, 유머와 모험, 놀라운 반전이 가득한 이야기!" -뉴욕 타임즈 베스트 셀러 『Tuesdays at the Castle and Dragon Slipper』의 작가, 제시카 데이치 조지

*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소설로 때때로 독자들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독자들을 놀라게 만드는 이야기."- 북리스트

* 캐나다 2020 Silver Birch Fiction Award 수상작 /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러시아, 포르투갈 계약

에미는 갑작스럽게 영국의 명문 기숙학교인 웰스워스로 보내지고 말았다. 아빠는 몇 년 전에 실종되었고 홀로 남은 에미의 엄마는 에미를 돌보기에는 너무나 바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에미는 당연히 자신이 이 명문 기숙학교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어느 날 집 다락방에서 아빠가 숨겨둔 신비한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 속 물건들을 통해 영국에 있는 그 학교에 간다면 영국 출신인 아빠에 대해서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의 말에 따라 그 학교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한 에미는 학교 내에서 아빠가 남긴 메달들에 새겨져 있는 기이한 상징들과 같은 것들을 발견한다. 또한 에미와 에미의 새로운 친구인 잭과 롤라는 에미를 비밀스러운 모임으로 이끈다. 이 학교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아빠의 실종도 혹시 이 학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흥미진진한 시리즈의 문을 여는 첫 시리즈이다.

어느 날 에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아동 심리학자이자 육아 전문가로 미국 전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엄마 파멜라가 곧 육아 관련 프로그램을 촬영하게 되는 바람에 에미와 함께 할 시간이 없어질 것 같다며 에미를 미국도 아닌 영국에 있는 기숙학교로 보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자신과 상의 하나 없이 이런 결정을 한 엄마가 믿긴 했지만 사실 에미는 '영국'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아빠를 떠올렸다. 에미의 엄마 파멜라와 9년 전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빠 토마스는 영국에서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된 사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의 영국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아빠가 실종된 후에도 글 찾기 방법을 전혀 찾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전 에미는 자신을 '친구'라고만 밝힌 한 사람으로부터 의문의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에서 그 사람은 곧 변화가 찾아 올 것이니 혹시라도 아빠의 물건을 발견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 말했다. 에미는 집을 떠나게 된 이 상황에서

다시 그 편지를 떠올렸고 엄마가 잠든 사이 아빠의 물건을 찾아볼 요량으로 집을 뒤져보기로 했다. 에미는 굴뚝 근처에서 다른 부분들과 달리 코팅 된 것처럼 반짝이는 돌 벽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벽을 밀자 에미의 눈 앞에는 철로 된 상자 하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빠가 자신에게 남긴 편지를 발견했다. 아빠는 편지로 에미에게 만약 이 편지를 발견한다면 절대 엄마에게 말하지 말고 이 물건을 잘 간직해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에미는 그 상자 안에서 물방울, 동그라미 등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12개의 메달들을 발견했다. 에미는 하필 영국으로 가기로 한 때에 의문의 편지를 받았고 아빠의 상자까지 발견한 것으로 보아 아빠는 살아 있을지도 모르며 이 모든 우연이 자신을 영국으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에미는 영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에미는 운 나쁘게도 너무나 심술 맞은 ‘빅토리아’라는 룸메이트를 만나게 된 바람에 학교 내에서 빅토리아와 그녀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했고 생소한 영국 기숙학교 문화와 미국에서는 배우지 않았던 낯선 과목들 때문에 수업조차 따라가기 힘들었다. 하지만 에미는 곧 잭과 롤라라는 친구들을 만나 친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에미는 역사 수업 시간 중 담당 교사인 존 발로우 선생님께서 어딘지 모르게 수상한 말을 들었다. 튜더 시대 왕조 사람들이 그렇듯 모든 이들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말이었다. 에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긴 후 신입생이라면 의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한 학교 내 모임인 ‘라틴어 그룹’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들이게 되었다. 에미는 모임이 열리는 장소로 직접 찾아갔고 입구 문에 해골 모양이 새겨진 것을 보고 바로 아빠의 메달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문을 열자, 에미의 눈 앞에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겨우 십대 소년 소녀들인 그들은 키케로의 정치학이나 라틴 문학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이야기하며 장대한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에미는 곧 다른 학생들을 따라서 책들이 가득 꽂혀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 곳에는 오래된 가죽으로 된 책들이 있었는데 책의 표지에서 아까 입구 문에 새겨져 있던 이상한 상징이 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해골 오른쪽에는 십자가가, 왼쪽에는 단검이 있었는데 에미는 이 상징 역시 아빠의 메달에 있던 상징과 같은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에미는 직접 이 해골 상징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고 중세 시대 수도원 분열로 위기를 맞은 영국 수도사들이 남긴 귀중한 저작들을 수호하기 위해 이 학교에 만들어진 비밀 조직인 ‘블랙 할로우 레인’이라는 그룹의 상징이 바로 그 해골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에미는 아빠가 이 학교 학생이며 이 비밀 조직의 멤버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이르렀다. 하지만 발로우를 비롯한 학교 선생님들은 분명 에미의 아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에 대해 이야기 하기를 꺼렸고 에미는 이 조직과 아빠의 실종 사이에 분명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에미의 아빠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는 정말 살아 있는 것일까? 다음 2권이 기다려 질 수 밖에 없는 흥미진진한 기숙학교 모험담이다.

<저자 소개>

줄리아 노블 (Julia Nobel)은 캐나다 출신의 교사이며 다른 저작으로는 『The Secret of White Stone Gate』가 있다.